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홍성실*, 홍정아**, 전원희***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 기초과학연구소***

Sung-Sil Hong(hss9456@hotmail.com)*, Jung-Ah Hong(karen3115@naver.com)**,
Won-Hee Jun(jwh917@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학생들의 영성증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재방안으로 영성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2개 대학의 간호학생 203명을 편의 추출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들의 영성은 5점 만점에 3.18점,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42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영성의 경우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는 '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영성은 종교와 전공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영성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 | 영성 | 임상실습 | 스트레스 | 간호학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of variables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03 nursing students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osed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wo scales including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SPSS program. The mean score for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were above medium level, with the value of 3.18 and 3.42 out of 5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in spirituality according to religion and satisfaction on major while those i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sex and satisfaction on major.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was found. In conclusion, to reduce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program for spiritual improvement.

■ keyword : | Spirituality | Clinical Practice | Stress | Nursing Students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교육은 간호교육의 필수적인 과정임과 동시에 간호학생들에게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심각한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상황이다[1][2].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3] 전공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게 되어[4] 올바른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1][5].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수행능력과 [6] 임상실습만족도를 [7] 감소시켜 임상실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불충분한 실습교육은 간호학생들이 졸업 후 임상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며 신규간호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8].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 및 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사연구 위주로 이루어졌고, 관련요인으로 자기효능감[1], 자아존중감[1][9], 셀프리더십[7][10], 감성지능[11], 자아탄력성[12], 자기노출[10]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연구에 따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 단순히 수치로만 비교하기는 어렵겠으나, 지방의 3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황성자 [1]의 연구에서 3.56점, 양남영, 문선영 [7] 3.45점, 한선희, 유혜순 [10] 3.43점, 김경화, 김은심 [13] 3.5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무현장에서 충분히 기능하는 내일의 간호사 양성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간호교육기관이 여전히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당면과제라 할 수 있고, 간호교육기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무형의 내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성은 [14]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중요한 신념과 믿음 체계와 관련 되어 있다. 이 신념 체계들은 삶의 고통까지 포함하여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15]. 즉, 영성은 스트레스 원에 직면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16]. 또한 영성은 일종의 생명력으로 내재된 능력이며, 자신을 타인과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시켜주는 우주적 에너지로써 [17], 개인과 환경 간의 신뢰와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하여 개인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일 수 있도록 돕는다 [14][18]. 선행연구들은 영성과 스트레스 간에 부적상관 관계가 있고, 영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극단적 대처일 수 있는 자살행동을 감소시키며 [19], 대만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20]. 따라서 영성은 간호학생들에게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동기부여 하여 개인의 성장과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16][21].

지금까지 영성에 대한 국, 내외 연구는 대부분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2-27],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에서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간호학생들의 영성증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 및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대상자는 A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학과 3학년(졸업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215명을 편의 추출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210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한 203(9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하였고 질의응답을 통해 대상자들이 설문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이 연구목적에만 사용되며 연구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이 보장되고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응답을 철회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사전 설명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상관관계 양측검정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 효과크기인 .30, 검정력 80%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는 82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영성

Howden [28]이 개발하고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27]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삶의 의미와 목적 4문항, 내적 자원 8문항, 관계성 10문항, 초월성 6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2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3.2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 Srivastva [29]가 개발하고 김순례, 이종은[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4문항이며 실습교육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6문항, 실습업무부담 4문항, 대인관계갈등 4문항, 환자와의 갈등 5문항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순례, 이종은[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총 203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 179명(88.2%), 남학생 24명(11.8%)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107명(52.7%),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96명(47.3%)이었다. 거주형태는 기숙사 108명(53.2%),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50명(24.6%), 자취 43명(21.2%), 친척집 2명(1.0%) 순이었다. 성적은 평점 3.5-4.0이 90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4.0이상인 13명(6.4%)으로 가장 적었다. 전공만족도는 보통 79명(39.0%), 만족 64명(31.5%), 불만족 51명(25.1%), 매우만족 9명(4.4%) 순이었으며, 대학만족도는 만족 94명(46.3%), 보통 57명(28.1%), 매우만족 31명

(15.3%), 불만족 21명(10.3%) 순이었다. 입학 동기는 취업 용이성이 96명(47.3%)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3)

변수	구분	n(%)
성별	여자	179 (88.2)
	남자	24 (11.8)
종교	유	96 (47.3)
	무	107 (52.7)
성적	2.5~(3.0	24 (11.8)
	3.0~(3.5	76 (37.5)
	3.5~(4.0	90 (44.3)
	4.0≤	13 (6.4)
전공만족도	매우만족	9 (4.4)
	만족	64 (31.5)
	보통	79 (39.0)
	불만족	51 (25.1)
지원동기	성적	15 (7.4)
	취업	96 (47.3)
	적성	38 (18.7)
	타인의 권유	54 (26.6)

2.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표 2]와 같다. 영성의 평균은 3.18±0.50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3.47±0.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계성 3.32±0.50점, 내적자원 3.15±0.61점 순이었으며 초월성이 2.80±0.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평균은 3.42±0.50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실습교육환경이 4.04±0.6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실습업무부담 3.93±0.69점,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 3.74±0.65점, 대인관계갈등 2.64±0.67점, 환자와의 갈등 2.64±0.76점 순이었다.

표 2.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N=203)

변수	하위영역	Mean±SD
영성	관계성	3.18±0.50
	초월성	3.32±0.50
	내적자원	2.80±0.63
	대인관계갈등	3.15±0.61
	삶의 의미와 목적	3.47±0.73
임상실습 스트레스	실습교육환경	3.42±0.50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	4.04±0.67
	실습업무부담	3.74±0.65
	대인관계갈등	3.93±0.69
	환자와의 갈등	2.64±0.67
	환자와의 갈등	2.64±0.76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영성은 종교와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무교 보다 영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529, p=.012). 전공만족도는 사후검정 결과, 매우만족이 3.65±0.62점으로 불만족 3.07±0.50점에 비해 영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3.621, p=.014).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학생이 3.45±0.50점으로 남학생 3.21±0.10점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t=2.232, p=.027). 전공만족도에서는 사후검정 결과, 불만족 3.63±0.55점이 매우만족 3.10±0.53점, 만족 3.36±0.45점, 보통 3.37±0.47점에 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F=4.857, p=.00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N=203)

변수	구분	영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Mean±SD	t/F(p)	Mean±SD	t/F(p)
성별	여자	3.17±0.50	-1.271	3.45±0.50	2.232
	남자	3.30±0.45	(.205)	3.21±0.10	(.027)
종교	유	3.27±0.54	2.529	3.39 0.53	-0.780
	무	3.10±0.44	(.012)	3.45 0.48	(.436)
성적	2.5~(3.0	3.08±0.39		3.44±0.46	
	3.0~(3.5	3.17±0.50	0.546	3.41±0.53	0.210
	3.5~(4.0	3.21±0.53	(.651)	3.43±0.50	(.889)
	4.0≤	3.26±0.43		3.32±0.49	
전공만족도	매우만족 ^a	3.65±0.62		3.10±0.53	
	만족 ^b	3.20±0.51	3.621	3.36±0.45	4.857
	보통 ^c	3.19±0.45	(.014)	3.37±0.47	(.003)
	불만족 ^d	3.07±0.50	a)d	3.63±0.55	a, b, c/d
지원동기	성적	3.24±0.45		3.45±0.52	
	취업	3.10±0.50	1.648	3.39±0.46	0.595
	적성	3.24±0.46	(.180)	3.38±0.53	(.619)
	타인의 권유	3.27±0.53		3.49±0.56	

4. 변수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일반적 특성에서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모두에 유의한 변수인 전공만족도(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를 통계한 편상관분석으로 구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영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다($r=-.131$, $p=.032$), 하위영역에서는 실습업무부담($r=-.127$, $p=.036$)과 대인관계갈등($r=-.140$, $p=.023$)에서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다.

표 4. 변수간의 상관관계 (N=203)

변수	영성
	r(p)
임상실습 스트레스	-.131(.032)
실습교육환경	-.100(.078)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	-.086(.112)
실습업무부담	-.127(.036)
대인관계갈등	-.140(.023)
환자와의 갈등	-.041(.281)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학생들의 영성증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재방안으로 영성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들의 영성은 3.18점으로 보통수준이었으나,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한 이명화[3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3.89점과 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적안녕을 측정한 Taliaferro, Rinzo, Pigg, Millrer, Dodd [31]의 연구에서 3.86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영성이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종교유형 간 비교 시, 기독교가 무교에 비해 영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이명화[3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종교가 있는 경우(47.3%)보다 무교(52.7%)의 비율이 높았던 본 연구대상자들과는 달리, 이명화[30]의 연구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Taliaferro 외[31]의 연구는 기독교 중심의 미국사회에 속해있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자들에 비해 영성수준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대학생들의 영성수준이 본 연구 대상자들의 영성수준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극단적 대처라 할 수 있는

자살사고가 높았던 최순옥, 김숙남[32]의 연구와 영성과 스트레스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Koenig [19]의 연구결과를 감안했을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의 영성수준은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영성의 하위영역 중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 점수가 가장 높았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로 세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된 정체감을 얻을 수 있다[33].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공에 대한 적성(18.7%)보다는 취업의 안정성이나 타의(74%)에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대학과정동안 심적 갈등과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므로[34] 안정된 정체감 확립을 위해 전공 및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입학초기 간호전문직에 대해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후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안정된 정체감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위영역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영역은 ‘초월성’이었다. 초월성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과 함께 자아를 넘어 더 큰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영성의 하위영역 중 가장 종교적 차원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17].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무교가 절반이상이었던 대상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40점으로 보통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실습교육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실습업무부담이었다. 최근 간호교육기관과 간호학생 수가 증가되면서 교육기관은 우수한 실습기관을 확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실습기관에서 실습교육의 질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고 실습교육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교육요구와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간의 차이 또한 커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35].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대상자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간호수행을 원하고 있으나 현실은 관찰위주의 제한된 실습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35]. 이러한 실습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 실

제적인 실습보다는 과도한 과제물을 부과하게 되고 현장에서 비교육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를 발생시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한 권인수, 서영미[35]의 연구에서 대상자의 61.9%가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임상실무에서의 실습내용이 잘 연결될 수 있는 노인병원, 정신병원 등의 특수영역 전문병원을 바람직한 실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병원은 중소병원인 경우가 많아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으나[36] 대상자나 의료가 특화되어 있어 간호학생들은 실습목적에 부합되는 간호수행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다양한 전문병원을 실습기관으로 확보하고 아울러 이들 기관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실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종교와 전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의 영성점수는 3.27점으로 무교인 학생의 3.10점에 비해 영성이 유의하게 높았다($t=2.529, p=.012$). 영성은 종교적, 실존적 의미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영성과 종교성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왔고[36] 영성의 하위영역 중 관계성이나 초월성은 종교적 차원에서 신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종교가 있는 경우 영성의 이러한 속성들을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 내 종교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종교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영성을 증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하는 것은 간호학생들의 영성증진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영성이 높았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학생들은 수업에 몰두할 수 있고, 전공교과목 수업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인간의 영적 측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영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본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았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간호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

하는 동기적 성향이 강하고, 임상실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게 된다[38]. 즉,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이 아닌 성장과 도전의 기회로 받아들여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r=-.131, p=.032$) 영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만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211, p<.001$) 보고한 Hsiao 외[20]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두 변인간의 상관 정도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나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간호학생의 영성을 증진하는 것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은 학생들의 영성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방안으로 영성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관련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2개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결과에서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여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고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학생들의 영성증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영성수준은 3.18점으로 보통수준이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40점으로 평균이상의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영성의 경우,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서는 실습교육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영성은 종교와 전공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상관 관계를 보여 영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지역과 대상자 규모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성 외에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련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학생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변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영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적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참 고 문 헌

- [1] 황성자,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 [2] 한지영, “간호학생이 인지한 임상실습교육환경”,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2권, 제5b호, pp.2595-2607, 2010.
- [3] 안혜경,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8권, 제6호, pp.2249-2263, 2006.
- [4] 박미영, 김순이, “전문대 간호학생들의 첫 임상실습체험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6권, 제1호, pp.23-25, 2000.
- [5] 양영옥, 이선옥,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4권, 제2b호, pp.979-989, 2012.
- [6] 김인숙, 장윤경, 박수호, 송소현, “간호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37-345, 2011.
- [7] 양남영, 문선영,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16-225, 2011.
- [8] 양진주, “간호학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성인간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548-560, 2008.
- [9] 김순례, 이종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98-106, 2005.
- [10] 한선희, 유혜순, “일 지역 간호대 학생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노출”,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131-140, 2012.
- [11]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and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31, No.8, pp.855-560, 2011.
- [12] M. A. Margaret and M. K. Jessica,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resilience in the health disciplin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Vol.29, No.4, pp.371-379, 2009.
- [13] 김경화, 김은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아존중감 및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4권, 제3호, pp.1519-1533, 2012.
- [14] A. Narayanasamy, “The puzzle of spirituality for nursing: a guide to practical assessment,” British Journal of Nursing, Vol.13, No.19, pp.1140-1144, 2004.
- [15] J. Swinton, “Promoting healing environments

- through spiritual care for healthcare professional and patients,” *Health & Mission*, Vol.17, pp.15-23, 2009.
- [16] D. Baldacchino and P. Draper, “Spiritual coping strategies: a review of the nursing research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4, pp.833-841, 2001.
- [17] 이경열, 김정희, 김동원,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4호, pp.711-728, 2003.
- [18] D. V. Powers, R. J. Cramer, and J. M. Grubka, “Spirituality, life stress and affective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 Theology*, Vol.35, No.3, pp.235-243, 2007.
- [19] H. G. Koenig, “Research on religion,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a review,”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Vol.54, pp.283-291, 2009.
- [20] Y. C. Hsiao, L. Y. Chien, L. Y. Wu, C. M. Chiang, and S. Y. Huang, “Spiritual health, clinical practice stress, depressive tendency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6, No.7, pp.1612-1622, 2010.
- [21] T. L. Gall, C. Charbonneau, N. H. Clarke, K. Joseph, and L. Shouldice,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pirituality in relation to coping and health: a conceptual framework,” *Canadian Psychology*, Vol.46, No.2, pp.88-104, 2005.
- [22] Y. C. Hsiao, H. F. Wu, L. Y. Chien, C. M. Chiang, Y. H. Hung, and P. H. Peng, “The differences in spiritual health between non-depressed and depressed nur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21, pp.1736-1745, 2012.
- [23] 김숙남, “일 지역 의사와 간호사의 영성”, *정신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43-153, 2010.
- [24] 김숙남, 최순옥,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01-110, 2010.
- [25] S. Ronaldson, L. Hayes, C. Aggar, J. Green, and M. Carey, “Spirituality and spiritual caring: nurses’ perspectives and practice in palliative and acute care environment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21, pp.2126-2135, 2012.
- [26] 윤매옥,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안녕과 영적간호수행”,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제12권, 제2호, pp.72-79, 2009.
- [27]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 “한국어판 영성측정도구(S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연구”, *종양간호학회지*, 제1권, 제2호, pp.168-179, 2001.
- [28] J. W. Howden, *Development &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92.
- [29] D. L. Beck and R. Srivast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127-133, 1991.
- [30] 이명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관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11권, 제3호, pp.265-274, 2004.
- [31] L. A. Taliaferro, A. A. Rinzo, R. M. Pigg, M. D. Millrer, and V. J. Dodd, “Spiritual well-be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58, No.1, pp.83-90, 2009.
- [32] 최순옥, 김숙남,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90-199, 2011.
- [33] 김종성, 안상섭, 한성열, “영성의 긍정적 기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15권, 제1호, pp.207-226, 2009.
- [34] 고정은, 김미희, 김은진, 김혜지, 엄지은, 이행아, 장누리, 장동은, 김문실, 전인숙,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일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간호학회지*, 제45권, pp.29-44, 2010.

- [35] 권인수, 서영미,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간호학생의 요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25-33, 2012.
- [36] 강영한, 박종삼, “임상실습을 경험한 보건계열 학생들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7호, pp.223-231, 2012.
- [37] 오복자, 강경아, “영성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30권, 제5호, pp.1145-1155, 2000.
- [38] 구현영, 임형석, “학제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pp.311-321, 2013.

전 원 희(Won-Hee Jun)

정회원



- 199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4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간호교육

저 자 소 개

홍 성 실(Sung-Sil Hong)

정회원



- 199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3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 간호교육

홍 정 아(Jung-Ah Hong)

정회원



- 199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200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0년 10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원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간호교육